내가 오다가 엎드러졌으면 내가 일어나야지 누가 일으켜주는 게 아닙니다

☞ 21면에서 계속

죠. 그리고 그전에도 참, 미국 사람한테 너무 까불다가 한번 혼났고, 또 너무 까불다가 사명 대사한테 혼났고, 그래 가지고 아주 자지러져서 이제는 저 국수 가게까지도 갖다 놨습디다.

그러니 모든 게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오고, 언짢은 일을 했으면 언짢은 결과가 오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 공부 하면서 사명 대사도 서산 대사도 이 조국을 위해 애쓰신 걸 잘 생각해 봐야죠. 그분들은 일본 군사가 붙들러 오면 이쪽으로 가면서도 짚세기를 거꾸로 신고 갔단 말이야, 짚세기를. 거꾸로 신고 담을 뛰어넘어 가니까, 담을 뛰어넘어 온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붙잡히질 않고 그렇게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그랬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서른 안짝으로 나이가 적었을 때 얘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산으로 다니면서 이럭저럭 지내다가 뭘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사정이 있는 이치가 있어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맹물에다 빨아서, 물이나 뭐, 맹물이나 어디 그렇게 있습니까, 산에. 그런 것도 없는 데다 빨아서 입었으니깐 너무 추웠습니다. 내가 이런 소릴 지금 세 번째 하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발치에서 불이 깜박거렸습니다. 그래서 '서산 대사처럼 축지법을 했으면 내가 이런 추위를 모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그때는 시대가 시대니만큼 활이나 칼이나 창을 쓰던 시절이고, 지금은 몸뚱이로다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이런다면 그건 몹쓸 일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찌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랴. 몸뚱이가 가지 않고 내 이, 춥다는 의식 자체를 빼서 좀 뜨듯하게 만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가 시대니만큼 태양이 크게 확산이 돼서 만약에 우리 국민을 아니, 국민보다도 이 지구의 주인들을 그냥 삽시간에 다 삼켜 버린다면 어떻게 하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지구도 그렇지마는 저 태양도 우리 손아귀에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뭐든지 마음대로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될 수 있는 그런 나툼.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죠? "세 번째도 죽어야 한다." 일체 나와 더불어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는 나툼을 알아야 하겠기에 또 죽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서로 문답식으로 차차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지금은 내 영력으로써 이 몸속에 들어 있는 모든 생명들이 들고 나면서, 수십억 마리가 다 모습을 바꿔 가면서 급하면 급한 대로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생각에. 그러면 멀고 가까움도 없는 겁니다. 한 찰나입니다! 저런 혹성 세계에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벌써 은하계하고 그 별성과 더불어 나와 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게 천지가 다 통신이 되고 천지를 다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보이는 몸뚱이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감추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이 한생각을 해서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내가 돼서 바로 나는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천백억도 될 수 있고…, 그, 말로 어떻게 합니까, 그 수효를. 그렇게 일체가 다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뇌의 얘기도 해 드리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다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 우리 오늘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어때요? 질문하실 분, 어떠한 문제라도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더라도 또 때에 따라서는 모르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질문자1(남) 스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내가 내가 아니고 주인공이 진실한 나이며, 너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라는 부분에서 의심이 가는 거는 나의 주인공, 너의 주인공이 따로따로 있으며 그것을 관장하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어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이냐, 아니면 본래부터가 너와 내가 없이 태양 같이 하나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전체를 관장하는 주인공이 구분이 없이 하나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그러면 이거 한마디 묻겠소. 당신이 마음과 지금 말하는 그 이치가 있는 것도 당신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있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질문자1(남)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큰스님 그러니까 둘이면서도 둘이 아니죠? 네. 일체가 다 한마음에 벌어진 일이죠.

질문자1(남) 네.

큰스님 그런데 그 마음조차 없어요, 원칙으로는. 마음조차 없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시계추가 있는데, 시계가 있고 시계추가 있죠? 왔다 갔다 하니까 이쪽으로 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갔다고 말할 수도 없죠. 고정되게 묶여 있지 않으니까. 그것이 당신이라면 어떻게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아야 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얘깁니다. 그래 죽어야 자기를 알죠. 자기를 버려야 자기를 얻죠.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를 얻지 못해요.

사회자 말씀하실 분 없으시면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큰스님 가정에서 살아나가는데 이런 예가 있어요. 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어디 절에 가서 큰스님한테 여쭤 보니까 "너는 잘못 귀신이 들렸으니까 시식을 해라." 했다고 합디다. 그래도 낫지 않아서 왔다고 하는데, 그걸 나는 아무리 영계가 들렸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땐 그렇게 해 줘선 안 되죠. 아무리 영계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너 자신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을 해 줘야 되겠죠. 왜냐?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영계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들어온 사이가 없는 거니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거기에 대치를 해 주느냐면 "그게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어떠한 문제가 보인다 들린다 하더라도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안 나오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하고 거기 맡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점점점점, 더딘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신을 가다듬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를 했다? 무슨 호흡인가 뭐를 하다가 열이 머리로 올라와 가지곤, 선생님인데 학교에 나갈 수도 없다고 그러더군요.

그랬는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모든 걸 놓지 않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라는 걸 놓지 않고 항상 그 머리에 열을 올려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몸뚱이는 호흡법을 해도 피를 모아서 사대(四大)를 탁 펼치는 반면에 그 몸의 피로한 거를 풀기 위해선데, 그 몸을 풀기 위해서라면 주인공에 맡겨 놓으면 다 여기 생명들이 운반해 줘서 건강해질 텐데, 구태여 그걸 꿇어앉아서 말이야, 그 피를 모아서 하다가 잘못되면, 머리로 올라가면 그건 고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위험치 않게, 여러분이 위험하면 내가 위험해. 왜? 나니까, 하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 우는 걸 보면 내가 아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픈 짓은 안 하죠. 그러니 여러분이 사고 나지 않도록 시키기 위해서 주인공을 믿고 '당신이 오다가 엎드러졌으면 당신이 일어나야지 누가 일으켜 주는 게 아니다. 전생에 내가 살면서 악업 선업을 지었다면 그 속에서 다 악업 선업이 나오는 건데 나오게 되면 한번 거기다 다시 넣어라. 거기서 악업 선업도 지은 거니까 그 악업 선업을 무너뜨리는 것도 거기다.' 하곤 탁 놓는다. 또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잘된다 하면 또 '잘됐으니까 감사하다. 우리가 지수화풍으로서 지수화풍을 먹고 사는데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세 번 죽어야 한다는 요 말 한 마디를 이렇게 해 보죠. '나를 버려서 나를 얻는 소식이다' 하고 '탕!' (주먹으로 법상을 치시며) 이렇게 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또 '나와 더불어 일체를 버려서 일체를 얻는 소식이다', '탕!' 이렇게 치고. 이 소식이 이게 광대무변해서 말로는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분들도. 그러면 또 '나와 더불어 나를 버려서 일체 나툼의 소식이니라.' 하는 것을 그 말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게 '탕!' 이렇게.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소식을 아신다면 나와 같이 동등하고 또는 일체와 같이 동등하고, 일체 우주 천하가 도량이고 일체 천하가 다 나 아님이 없고, 또 내 몸 아님이 없고, 참 내 아픔 아님이 없어서 정말 옛날에는 창, 칼, 활로 전쟁이 나도 그렇게 쓰던 건데, 우리가 이 도리를 알면 그냥 보이지 않는 데에 까마귀 떼 가듯 해서 그 참, 의식 속에 들어가서 서로 해치지 않도록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 공부를 잘해서 전체의 모든 남과 나를, 나도 남도 다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 일체를 구하려고 든다면, 만날 싸움질들을 하니까 싸움하게 놔두었다가, 재미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좀 재미로 봤다가 나중에 이게 큰 어른 싸움이 나겠구나 이러면 말려야죠. 그 말릴 때에 창이나 칼이나 활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지금 세상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육신통을 해서 술수를 안다 하더라도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는, 시대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써 뭐든지 내가 될 수 있고, 나툴 수 있고, 또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과거를 알 수가 있고, 현실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서 내가 바로 결단적으로 누진을 통해서 대뇌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거를 결정을 짓는다, 이럴 때 바로 우측, 그 바른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하는 거는 우측에서 하고, 나와서 일을 하는 거는 바로 좌측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남을 해치려 드는 한 사람이 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죽여도 살인이 되지 않는 거죠. 살생이 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이것도 자비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싸움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여러분이 원심력에서 원통력을 굴릴 수 있는 데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내 몸 이 혹성 안에서도, 내 이 혹성 안에 들어 있는 이 생명들도 마음대로 운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뭐 걱정입니까? 야, 여기서 신호가 오면은 '내가 죽겠다' 고 그러걸랑 '그럼, 그거 얼른 공장장한테 얘기해서 고쳐!'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냥 애를 쓰고 그러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것도 그 속에 악업 선업의 그 생명들이 돌아가면서, 육체로는 돌아가면서 그 악과 선을 자꾸 풍긴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이지 않는 데서 풍기니까 보이는 데로 나올 수밖에. 그러니 여러분이 고덩어리죠. 그래서 고덩어리를 면하려면, 그 고덩어리가 나온 데다가 고덩어리를 그냥 되놔라 이거야. 오늘은 이것으로써 마치고요, 요다음 법회 때는 질문을 하실 거를 간단하게 써 가지고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아셨죠?

> 죽어야 자기를 알죠.
> 자기를 버려야 자기를 얻죠.
>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를 얻지 못해요.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9년 8월 20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마음이 향기를 내는 책, **법보시 주문**은 02)732-1520 으로 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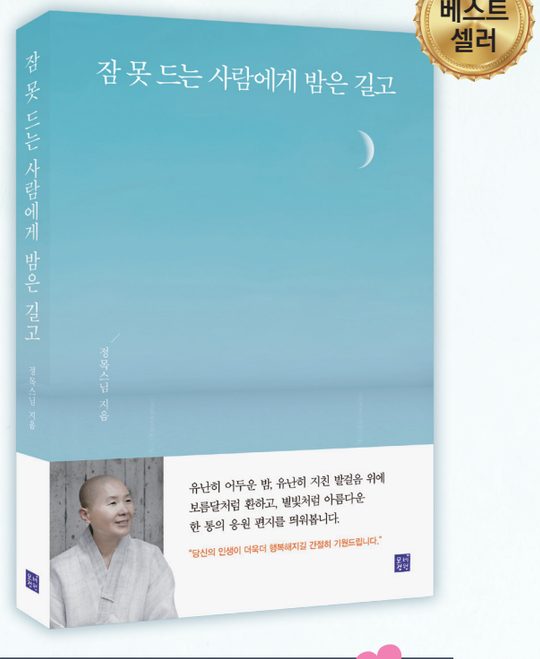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당신에게,
정목스님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이야기들**

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정목 스님 낭독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이 책의 저자 인세 수익금 전액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에 희사합니다.

정목 지음 / 248쪽 / 14,000원⇨ **12,600원** (배송비 별도)

모네의 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